

대 NEPAD 지원추진 (아프리카개발 이니셔티브 후속조치)

김성춘 참사관은 6.2(금) NEPAD 사무국의 L. Macharia 대외개발파트너십담당관을 면담, 표제건에 대해 파악한 바, 관련사항(Macharia 담당관 언급사항) 아래 보고함.

1. 우리의 대NEPAD 지원추진에 대한 NEPAD 측 입장

- 한국정부의 ‘아프리카개발이니셔티브’와 이에 따른 대NEPAD 지원추진을 크게 환영하며 한국측이 지원추진 과정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겠음.
- NEPAD는 아프리카국가들이 세계화시대에서 아프리카대륙의 자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아프리카 개발지원은 holistic, integrated, co-ordinated한 접근을 요하는 점을 감안시, NEPAD는 국제사회의 아프리카 개발지

원에 있어 명실상부한 policy framework인 바, 한국의 대NEPAD 지원추진은 매우 고무적임.

- 참고로, NEPAD의 목표는 ① 아프리카의 지속발전 조건 확보를 위한 여건 촉진 - 평화와 안보 정착, 민주주의와 good governance(정치, 경제, 기업 부문), 지역 협력 및 통합, 능력개발(capacity-building), ② 정책개혁 및 우선순위 분야에 대한 투자증대 - 농업, 인적자원개발(특히, 보건, 교육, 과학기술 및 기능), 인프라(ICT, 에너지, 교통, 수자원 및 위생), 수출상품의 다양화(특히, 농산물, 공산품, 광물, 관광 등), ③ 자원 가동(mobilization of resources) - 국내 저축 및 투자 증대, 공공예산 관리능력 향상, 아프리카 무역의 세계무역 비중 증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부채탕감 및 ODA 확대를 통한 자본 유입 증대 등임.

2. NEPAD의 여타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원동향

가. 수원 종류

- NEPAD framework을 통한 지원은 수원주체에 따라 NEPAD 사무국에 대한 지원인 Institutional Support와 NEPAD 산하 7개 지역 경제 공동체 (regional economic community)에 대한 지원인 Programmatic Support로 분류됨. 전자는 사무국의 일반 활동에 대한 예산지원(grant)인 Budget Support와 사무국이 관장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인 Sectoral Support로 구분되며, 후자는 7개 지역경제공동체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공여나 자금(funding, loan 등) 지원임.
- Institutional Support는, ① Budget Support : NEPAD 사무국의 일반 활동에 대한 예산지원, ② Sectoral Support : NEPAD 사무국의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facilitator/catalyst/negotiator로서의 관장 업무, 즉 policy framework 성안, 프로그램 이행계획 작성, 이행지원(institutional arrangement for implementation) 등의 활동에 대한 지원이며, Programmatic Support는 구체 프로젝트에 대해 원조국이 상기 지역 경제공동체(legal entity는 해당 국가)와 직접 계약당사국이 되어 프로젝트를 추진을 지원하게 되나 NEPAD 사무국으로부터 framework/modality 마련이나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monitoring/tracking mechanism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Institutional Support

: Enhance Institutional Coordination Framework among the AU/NEPAD, RGEs, ADB and member States

※ Programmatic Support

: Enhance Capacity for Projects Developments and implementation (AU/NEPAD, RGEs, ADB and member States)

- 동 지역경제공동체는 ECOWAS(Economic Community for West African States), IGAD(Inter-Governmental Authority on Development), COMESA(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n States), AMU(Arab Maghreb Union), ECCAS(Economic Community of Central African States), SADC(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임

나. 수원 동향

- NEPAD framework을 통한 지원 중 Programmatic Support는 NEPAD의 현행 제도와 규정상 관련사항에 대해 NEPAD 사무국에 보고의무가 없는 관계(Programmatic Support는 계약 주체가 원조국가/국제기구와 수원국가)로 사무국도 정확한 수원 동향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대체로

Programmatic Support를 포함한 원조금액 순위는 G8, EU,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의 순으로 알고 있으나, 가능한대로 데이터를 파악, 알려 주겠음.

- Institutional Support 관련, 2005년도의 경우 원조국(국제기구 포함)으로부터의 수원금액은 27.3백만 랜드(Rand, 약 445만 미불)로, 주요선진국(국제기구 제외)의 수원 규모는 스웨덴 437만 랜드, 아일랜드 113만 랜드, 벨기에 110만 랜드, 덴마크 107만 랜드, 노르웨이 92만 랜드 등이며, AU 회원국 자체기여금(회원국은 매년 최소 10만미불 이상의 기여금 납부의무)은 26.7백만 랜드 (약445만미불)임.

- 일본과 중국의 경우는 각각 Programmatic Support와 양자원조(특정국가의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funding)가 대종을 이루고 있음.

- 한편, 국제사회의 최근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 동향은 부채탕감, 긴급지원 및 선정 등의 분야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농업, 보건·인구 분야 등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 이는 주요 원조공여국(북구국가 제외)들이 아프리카대륙의 내재적인 필요에 대한 고려보다는 세계화시대에 있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문제를 우선시하는 시각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Peace and Security”, “Post-Conflict and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Good Governance” 등의

분야에 대한 원조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많은 원조국들이 수원국의 요청보다는 자국의 희망사항 우선 반영을 요청하면서 과도한 safeguard /condition을 부과하는 관계로 기대효과가 저상되는 경우가 상당함. 또한 인프라 분야 원조와 관련, 프로젝트의 성격상 상당한 규모의 지원이 장기간 요청됨에도, 원조공여국의 원조이행이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 차질이 발생하는 등의 애로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북구국가들은 GDP대비 원조금액도 클 뿐 아니라 수원국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원조 행태를 보이고 있음.

3. NEPAD측이 우선지원을 희망하는 분야 및 협력형태

- NEPAD는 인프라분야와 농업분야(수산업 포함)에 대한 우선 지원을 희망하나, 구체적인 우선순위는 지원규모에 따라 달려 있음. 즉, 농업분야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지원규모로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데 반하여, 인프라분야는 대체로 지원규모가 크며 장기간의 사업기간이 소요된다는 부담이 있음.

- 한국 측의 지원예정규모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Programmatic Support 75%(인프라분야 40%, 농업분야 35%), Institutional Support 25% 정도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Programmatic Support의 경우, legal entity의 상대방 당사자를 해당국가로 하여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사업타당성 검토, framework/modality 성안 등에 대해 NEPAD 사무국이 협조할 수 있음. 우선, 별첨 자료(NEPAD 추진 우선순위 프로젝트)상의 개별 프로젝트를 검토한 후 관심 프로젝트에 대해 알려 주면 상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4. NEPAD의 ‘포괄적 농업개발 프로그램’ 추진 동향

- ‘포괄적 농업개발 프로그램(CAADP)’의 주요 목표(thrust)는 ① 지속관리 가능한 농토 확대, ② 농업기반시설 및 생산품의 시장접근성 향상, ③ 식량공급 확대, 기아감소 및 구급식량 비축, ④ 농업 연구조사 및 기술 향상임.
- NEPAD는 2003.4월 상기 4대 pillar에 대한 실행계획(action plan)을 수립(별첨 CAADP Roadmap 참조)한 바, NEPAD flagship으로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현재 17개로 6-7년 기간 중 157억미불의 자금소요가 예상되어 있음. 동 실행계획 이행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중장기(5-10년) 원조/ 자금 지원과 기술 지원을 필요로 하며, 또한, ① 농업 분야에 대한 학문적·전문적 연수, ② 전략 수립을 위한 정보기술체계, ③ PRSP과정

(Poverty Reduction Support Programme) 등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함.

- ‘포괄적 농업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는 WFP, IFAD, FAO 등의 국제기구가 대종을 점하며 개별국가의 원조는 아직 크지 않음. 이는 구체 프로젝트가 타당성(feasibility)이 부족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주요 원조국들의 평가와 함께, 주요 선진농업국의 자국 농업에 대한 여러 형태의 보조금 지원제도로 인하여 아프리카 농산물의 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저하라는 외재적 요인에 기인함.

- 그러나, 아프리카에서 농업개발은 MDGs 달성에 있어 매우 긴요한 분야이며, 최근 AU가 회원국 정부예산의 10%를 농업분야에 지출하기로 결정, ‘포괄적 농업개발 프로그램’은 상당히 viable한 것으로 자평하고 있음.

5. 우리 정부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분야 및 형태에 관한 남아공대사관 의견

- 상기 NEPAD측의 인프라분야 40%, 농업분야 35%, Institutional Support 25% 비율 참여를 염두에 두되, 우리의 NEPAD에 대한 원조가 시작단계임을 감안, 국제기구(FAO, World Bank, WHO, UNEP, UNESCO, UNCTAD) 및 지역기구(ACBF,

ADB, DBSA 등)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공동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Macharia 담당관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농업분야는 SADC, IGAD, ECCAS 지역, 과학 기술 분야는 COMESA, ECA, ECOWAS, SADC 지역, 무역 분야는 ECOWAS 지역, 무역분야는 COMESA 지역, 인프라분야는 중부아프리카 지역(원유 등 자원부국)과 SADC 지역(자원개발 목적의 인프라개발 역점추진)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그러나, 우리 정부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분야 및 형태를 결정하는 문제는 면밀하고 정확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안인 만큼, NEPAD측과의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6. NEPAD가 추진 중인 환경분야(생물다양성 분야 포함) 프로젝트 현황

- AU 정상회의(2003.7월)에서 채택된 'Environment Action Plan'에 따라 환경 관련 여러 initiative가 추진되고 있으며, UNEP 아프리카지역사무소가 긴밀히 협조하고 있음.
- 주요 관련프로젝트(구체사항은 별첨 자료 참조)는 "Climate Change", "Continental Bio-fuel Program - African Research and Development", "Africa wide-Human and resource capacity Program", "Protected Area", "Access and Benefit Sharing", "Achieving CBD 2010 Biodiversity Target", "Prioritiz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NEPAD Sub-regional Environment Action Plan" 등이 있음.

[자료: 주남아공대사관]